민주 “정부 R&D 예산 깎을동안 세계는 AI 기술 패권 경쟁”

정치권 ‘중국 딥시크 충격’… “뒤처져선 안된다” 공감대 속 해법 제각각
‘탄핵정국’에 컨트롤타워 마비 속 국정협의회는 한 달 넘게 공전 거듭

전 세계를 강타한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인공지능(AI) 모델 개발로 우리나라 AI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 정치권은 위기의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하는 데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우리도 뒤처져선 안 된다는 상황 인식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각각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와 ‘정부·여당의 무능’만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1일 당 ‘AI 특별위원회’ 주재로 긴급간담회를 열고 중국 딥시크 등 인공지능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언급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 해도 과언은 아닌 상황이다. 반도체 특별법과 첨단산업 에너지 3법도 거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반도체 업종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해 6월 발의됐으나, 아직 소관 상임위 소위 심사도 마치지 못했다.

AI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이후 상임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민주노총 심기 살피기에 급급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등을 이유로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반도체 등 전략산업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입법 폭주·줄탄핵·줄특검 등 무한 정쟁으로 날밤을 새우며 미래 먹거리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으로 AI 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다고 비판하며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민주당 이원혁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현 정부가 R&D 예산을 깎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초토화할 동안 세계는 미래를 향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작년 설립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윤석열의 측근 인사 의혹 외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주요 기업들은 개발과 연구에도 부족한 시간을 해외 투자자나 고객사에 한국의 내란 상황을 해명하는 데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AI 생태계에 뒤처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강경숙·백선희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시크발 AI 생태계 충격파에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정부에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신속한 작동, AI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로 사실상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상황에서 여야는 정부와 함께 AI 산업 지원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국정협의회’를 구성했지만, 한 달 넘게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정에선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을 국정협의회에서 다루자는 의견만 나왔을 뿐, 아직 협의회에서 다룰 의제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주철현, 민주 지명직 최고위원 사퇴

후임에 ‘경제통’ 홍성국 전 의원…“경제 위기 극복”

더불어민주당은 사의를 표명한 주철현(여수갑) 최고위원의 후임으로 홍성국 전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자는 취지의 인선이다”고 설명했다.

홍 전 의원은 증권사 평사원에서 시작해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미래에셋대우 사장까지 오른 인물로 현재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영입 인재로 합류해 세종갑 지역구에 전략 공천돼 당선됐으나, 지난해 총선에서는 “객관적 주장마저 당리당략으로 폄하를 당하는 등 후진적 정치구조의 한계를 느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홍 전 의원은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주도한 싱크탱크 ‘일곱번째 나라 LAB’ 소속이기도 하다.

또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도당위원장으로 민주정권 창출에 전념하겠다”며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남도당위원장인 주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해 9월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과 함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에 합류했다.

주 의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민주당의 본산인 전남에서부터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면서 “민주당의 심장인 전남도당이 앞장서서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완전히 회복하고, 기필코 민주정권을 창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당 “야권·시민단체, 내란 종식 원탁회의 열자”

조기 대선 겨냥 야권 연대 강조…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논의도 촉구

조국혁신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야권과 시민단체에 ‘내란 종식과 헌법수호를 위한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정질서 수호 편에 선 분들이 모두 한곳에 모여야 한다. 형식과 체면에 얽매이지 말자”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연대를 해야만 모두를 위한 정권교체, 국민을 위한 완전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야권 전체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도 최근 민주헌정연합을 구성해 민주주의 회복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는데,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연대를 해야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있다. 혁신당은 국민을 위한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쇄빙선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 원탁회의를 통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포함한 정치개혁 이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연대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우클릭 행보를 보이면서 혁신당의 기조와 차이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의 우클릭을 두고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은 정책연대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우리가 척결해야 하는 세력은 상습적 헌법 부정세력이다. 이들이 다시는 권력을 못 잡게 하는 대연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국힘, 헌재 흔들기 위험…망국적 선동 정치 중단하라”

尹측 헌법재판관 회피촉구엔 “재판 불복 위한 억지춘향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음모론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는 위험천만하다. 이런 음모론 선동 정치가 대한민국을 망국적 위기로 몰아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꺼내든 각종 논란이 지지층을 통해 음모론으로 확대 재생산 중”이라며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키워내는 정치가 국론을 갈라놓고 극단의 정치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소재가 국민의힘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측이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들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낸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 불복을 위한 억지춘향식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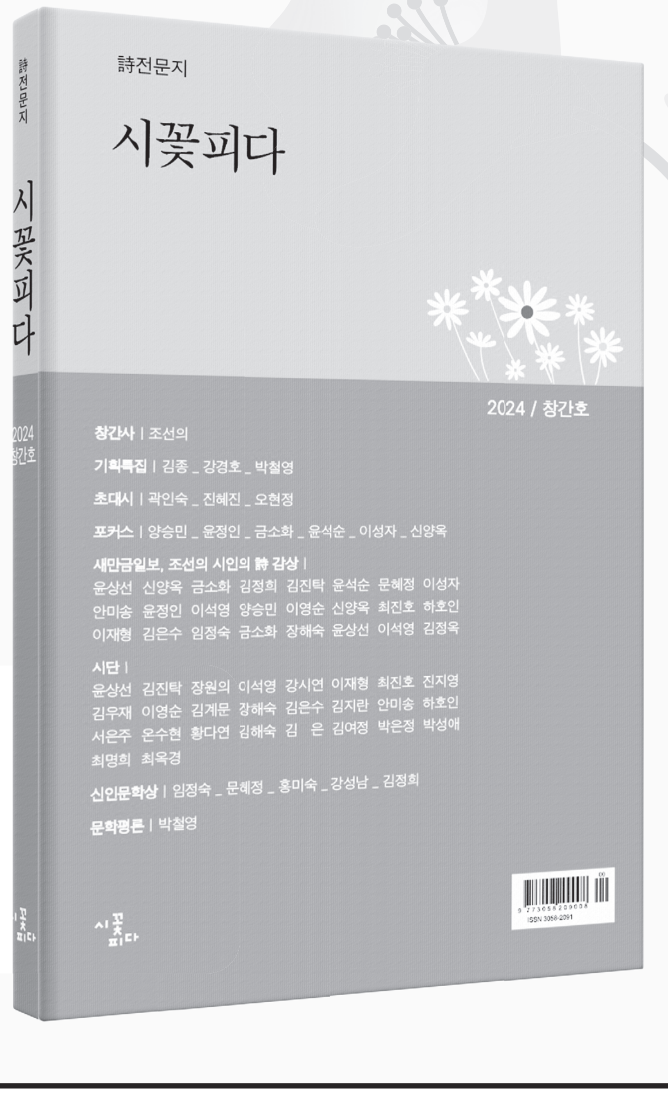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가 정한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자 탄핵 불복을 위해 듣도 보도 못한 법 기술을 꺼내 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으로, 스스로 파면 결정이 날 것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촉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빛을 소환하다』『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